

문화

■광주일보·시립미술관 '인문학강좌II' 제2탄

“전라도 땅은 뿌리부터 예술 명당 춘설차 처럼 훌륭히 가꿔나가야”

조용헌 불교민속학 박사 '땅의 미학·호남의 명문가와 풍수'

“배 품으면 문화가 나오기 쉽니다. 밥이 어디에 많습니까. 전라도 땅이죠. 이런 식후사(食後事)의 논리에 따라 한국의 전통예술은 전라도에서 번창한 것입니다. 전라도가 예향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죠.”

16일 오후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 시관 세미나실을 가득 메운 200여 명의 시민들은 조용헌(불교민속학 박사) 씨의 거침없는 입담에 즐거워 했다.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이 연중 공동 주최하는 '인문학강좌II-광주의 미학을 창조하자'의 네 번째 강사로 나온 조용헌 씨는 '땅의 미학·호남의 명문가와 풍수'라는 주제로 예인의 보향인 전라도의 풍수와 예술의 맥에 대해 이야기했다.

풍수지리와 동양학에 정통한 이야기꾼인 조용헌 씨는 먼저 땅의 기운과 문화·예술과의 관계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 후 예술(불기)하기 좋은 땅인 전라도가 예향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삼국시대 이래 가장 먹고 살기 좋은 곳이 전라도였고 그만큼 명문가와 예술인도 많이 배출됐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조용헌 씨가 주목한 곳은 무

등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춘설헌. 조씨는 춘설헌의 터가 예향의 맥을 일으키는 기운을 가졌으며 외재 허백련(1891~1977년)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그 기를 북돋우는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무등산 중심사 계곡에 있는 춘설헌 터는 풍수학적으로 양 갈래의 물이 합해지는 지점에 해당하고, 산의 화기와 물의 수기가 만나는 곳으로 명당이라는 것이다.

그는 원래 춘설헌 터는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주필을 지낸 최원순씨가 몸이 좋지 않아 요양을 위해 지은 토굴 석아정(石齋亭·돌 방어기)이 되겠다는 작심으로 지은 집이 들어섰던 자리며 그 다음에 오방정(五放亭)이 지어졌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예술혼이 깃든 명당에 지어진 무등산 춘설헌은 한국 근대사의 광주정신이 묻혀져 있는 곳이며 호남 제일의 문화살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씨는 또 춘설헌이 호남 제일의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춘설차가 한 몫했다고 말했다.

1950~60년대는 차를 마시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외재는 춘설헌을 찾는

이들에게 차를 내놓곤 했으며 유명도, 함석헌 등이 이 곳의 단골손님이었다. 이외에도 고은 시인, 사진작가 주명덕, 강운구씨 등이 젊은 시절부터 들락거렸다고 한다. 그는 이 점에서 춘설헌은 차와 그림, 시 그리고 민족사상 등 한국의 고전 풍류를 모두 갖춘 호남 문화·예술의 맥이었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의 기가 점차 쇠락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조씨는 광주 문화·예술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문화수도도 지양하는 광주가 80년대 이후 구심점을 잃고 위축된 면이 없지 않다”며 “예술적 토양과 인적 자원이 좋은 만큼 그 자원을 잘 가꾸고 발효시킨다면 훌륭한 상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인기 칼럼 '조용헌 살롱'을 연재하고 있는 조씨는 원광대 동양학과 등에서 강의했고,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방외지사' '조용헌의 사찰기행' 등의 책을 펴냈다.

한편, '인문학강좌II' 다섯 번째 강좌는 다음달 1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최완수 간송미술관장이 '검재 정선과 진경산수화'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문의 062-613-539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6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에서 열린 '인문학강좌II-광주의 미학을 창조하자'에서 강사 조용헌씨가 호남의 풍수적 특성과 허(許)씨가 등 예향 광주의 명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 27회 무등미술대전 신선·참신한 작품 많았다

9개 부문 1201점 출품돼 773점 입상
비엔날레전시관에서 7월 6일까지 전시



▲서양화=박영현 '여인'



▲한국화=여소현 '푸른 꿈'



▲공예=김태호 '흑단 향아리'



▲수채화=최상원 '햇님의 객'



▲판화=정봉숙 '사랑의 손길'



▲사진=김용욱 '오월의 영령들'



▲서예=박미선 '최기남 선생 시'



▲문인화=정완택 '소나무'



▲조각=김성수 '기룡성진'

16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심사를 마친 제27회 무등미술대전에서 '여인'을 출품한 박영현(33·광주시 동구 대인동)씨가 서양화 대상을 수상했다. 또 한국화 부문에서는 '푸른꿈'을 낸 여소현(31·서산시 강남구 삼성동)씨가 대상을 받았다.

이번 미술대전에는 올해부터 수채화 부문을 새로 포함해 서양화 등 9개 부문에 1201점이 접수됐으며 대상 9점, 우수상 23점, 특선 239점, 입선 502점 등 773점이 입상작으로 뽑혔다. <입상자 명단 인터넷 광주일보 참고>

전반적으로 출품작 수가 크게 늘었고 특히, 판화 부문은 새로운 기법을 이용한 참신한 작품이 많아 호평을 받았다.

사진 부문은 우수작품이 많았고, 서예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향상되었다는 평이다.

올해 처음 공모한 수채화 부문은 다소 출품작 수가 적었지만 예술성과 조형미를 겸한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심사위원장 김수길(한국화·신라대 명예교수)씨는 “신선한 감각과 전통적인 기법이 잘 조화된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았다”며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한층 성숙해 전국 공모에 걸맞은 대회로 비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와 작품은 다음과 같다. ▲문인화=정완택(51·인천시 남구 주안동) 작 '소나무' ▲수채화=최상원(60·전북 전주시 효자동) 작 '햇님의 객' ▲판화=정봉숙(전북 전주시 인후동) 작 '사랑의 손길' ▲조각=김성수(24·광주시 서구 상촌동) 작 '기룡성진' ▲공예=김태호(25·광주시 북구 임동) 작 '흑단향아리' ▲서예=박미선(41·북포시 석현동) 작 '최기남 선생 시' ▲사진=김용욱(45·광주시 서구 화정동) 작 '오월의 영령들'.

시상식은 오는 30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며, 입상작은 시상식 후 7월 6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전시된다. 문의 062-233-192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상무점 모든것이 바뀌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극장 프리미엄 인터리어, 아름다운 홀 이제 다리벌고 영화보자 30% 확 넓어진 앞뒤 좌석간격 TAKE OUT ITALY 120년 전통의 이탈리아 고급커피 LAVAZZA 런칭 더 밝고 넓어진 주차공간 내부 리뉴얼 공사로 인해 6월 21일까지 임시휴관합니다.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하남점 1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 (15세) 2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3관 씨니 (15세) 4관 씨니 (15세)/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5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 (15세) 6관 쿵푸팬더2 (전체)/프리스트 (15세) 7관 슈퍼에이트 (12세) 8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 9관 러브 앤 프렌트 (15세) 10관 캐리비안의해적 (12세)/모비딕 (15세) 11관 쿵푸팬더2 (전체)

MEGABOX M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최고등급 2관 슈퍼에이트 (12세) 3관 모비딕 (15세) 4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 5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 (15세) 6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7관 씨니 (15세) 8관 러브 앤 프렌트 (15세)/쿵푸팬더2 (전체) 9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 (15세)

CINUS 1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씨니 (15세) 2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 3관 슈퍼에이트 (12세) 4관 프리스트 (15세)/쿵푸팬더2 (전체) 5관 모비딕 (15세)/씨니 (15세) 6관 러브 앤 프렌트 (15세) 7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8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 (15세)